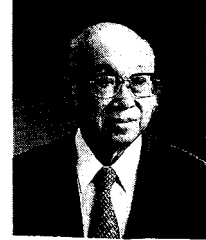


특강 I

일본 구개열학회의 발자취

일본 오사카대학 명예교수

Miyazaki Tadashi



제6회 대한구순구개열학회에서 특별강연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구개열의 수술 등에 관한 보고는 오래전부터 많이 있었으며 1940년 경에는 구개열의 수술 후 언어회복에 관한 좋은 결과가 얻어졌다는 보고를 시작으로 언어 치료에 관한 논문도 선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54년부터 3년간 일본 문부성 과학연구비의 수혜로 만들어진 “순열 구개열의 연구”의 종합연구, 永井 巖교수(당시 오사카대학 교수)가 반장으로 활약하여 얻어낸 성과가 일본의 구개열 치료의 여명이 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후 1962년 宮崎 正교수, 高橋 庄二郎교수(당시 동경치과대학) 中田 幸代교수(당시 동경의치대)와 협력하여 “일본구개열 언어치료 간담회”를 만들고 1970년에는 일본구개열 연구회를 만들었으며 1976년에 드디어 치과의사가 주축이 된 일본구개열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모두 구순구개열 학회의 발단은 치과의사인 것이 흥미로운데 이러한 일본의 구개열학회의 발전사와 더불어 일본내에서의 수술의 발전 역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Miyazaki Tadashi 교수약력

1944년 大阪齒科醫專卒業
1946年 09月 大阪帝國大學 醫學部卒業
1956年 08月 大阪大學齒學部助教授
1968年 12月 大阪大學 教授(口腔外科學第一講座)
1986年 03月 大阪大學 定年退官
 04月 大阪府立母子保健綜合醫院

學術關係

1962年 10月 口蓋裂言語治療懇談會 設立(會長)
1970年 04月 日本口蓋裂研究會設立(理事長)
1977年 04月 日本口蓋裂學會設立(理事長)
1982年 01月 日本口腔外科學會長(現在 名譽會員)